

성경에 기대어 본 이야기의 치료적 기능 고찰

- 어느 조현병 질환자의 환각세계를 그린 세바스티안 피체의 소설 『테라피』를 중심으로

임춘택 (경남대)

국문요약

이 연구는 세바스티안 피체의 소설 『테라피』에 나타난 라렌츠 박사와 안나 사이의 이야기를 치료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 연구는 문학의 미학적 차원에서 조현병과 관련한 소설 속 한 인물의 병리현상을 관찰함과 동시에 이야기의 치료적 특징과 효과를 분석한다.

이야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치료 이후로 줄곧 인지심리 치료, 이야기 치료 등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로써 유용하게 쓰여 왔고, 최근 들어 문학, 심리, 의학 연구자들과 치료자들에게서 그 치료적 가치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연구의 본론인 II, III장에서는 이야기의 치료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의 원활한 소통 기능, 거울 기능, 치료제 기능과 더불어 이야기 주도자의 능숙한 이야기 전개 능력, 치료 공간으로서의 이야기를 제시한다.

작가 피체는 심리스릴러 장르 소설 『테라피』에서 주인공 라렌츠가 미스터리하게 등장한 한 여성과의 이야기를 통해 조현병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함으로써 의학적 심리학적 치료과정에 대한 담론을 상징적으로 무난하게 각색해냈다. 이로써 독자는 소설 『테라피』를 통해서 한 조현병 질환자의 병적 심리를 상징적으로 경험하면서 이야기의 치료적 기능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이야기 치료, 조현병, 『테라피』, 심리스릴러, 세바스티안 피체

I. 서론

I.1. 현실세계의 조현병 문제와 문학텍스트 『테라피』

세계적으로 조현병 Schizophrenie¹⁾의 통상적 유병률은 각 지역, 사회, 문화 사이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국가 인구의 대략 0.5-1%에 이른다(Sartory 2007, 1). 독일은 전체인구의 1%인 80만 명 정도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고 매해 8천 명 정도가 새로 조현병에 걸리고 있다(BPtK 2017). 이처럼 조현병 증상을 지닌 사람이 100명당 많게는 1명에 해당하므로, 조현병은 누구나 일상에서 가끔씩 마주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다. 이 유병률로 볼 때 한국도 이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25-50만 명에 이르는 셈이 된다.²⁾ 더욱이 최근 한국사회는 ‘나혼자 산다’는 일인가구의 가파른 증가,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청소년의 이탈, 장기화된 청년실업문제로 인한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이 문제들과 표류하는 실정이라서 조현병 극복에 유리한 환경이 못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최근 몇 년 한국의 조현병 진료 환자수의 두드러진 증가³⁾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더라도 조현병 치료를 비롯한 정신질환치료가 외과치료보다 가족과 이웃을 중심으로 질환자 주위 인간관계망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치료 지향적 관계 형성과 이에 기반 한 언어 사용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위들이 약물 처방을 중심으로 한 의학의 치료 한계에 대한 대안, 보완 기능을 하여 조현병 치료에 본질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⁴⁾

여기서 언어 사용이란 ‘이야기’ 특성과 관련하는데, 그 이유는 질환자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와 문학적 또는 은유적이라 일컫는 성격의 치료 목적으로 고안된 이야기가 그 속성상 질환자의 증상을 드러내고 질환의 발생원인 찾기에 활용되며 나아가 치료제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이민용 2010). 필자는 이를 문학적 예시 차원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세바스티안 피첵 Sebastian Fitzek⁵⁾의 소설 『테라피 Die Therapie』

- 1) 정신분열증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병명이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의학계는 2011년에 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조현병(調絃病)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의미의 은유적 용어로 정신분열증을 대체하였다. 줄을 조율하지 않으면 악기가 불협화음을 내듯, 신경계 조율이 원활하지 않은 질환자가 치료를 받아 ‘일상 삶의 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치료 지향적 의미를 담았다.
- 2)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2017년 4월 13일자 보도 자료로 발표하였다. 정신질환은 한국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1번 이상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조현병 증상(환청, 환시, 조정망상, 피해망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7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 3) 연합뉴스, ‘망상과 환각 부르는 조현병 환자, 4년 새 10.6% 증가’(보도일자 2015년 8월 30일)
- 4) 한국의 정신건강의학계에서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의 일부는 연구자의 관점으로 볼 때 회의적이다. 의학계에서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주로 ‘생물적 취약성’ 즉 물질로써의 뇌의 병, 도파민 분비 조절 문제의 결과로 간주된다. 그럼으로 도파민 조절을 위해서 약물치료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대한조현병학회 2016, 30-32). 그러나 뇌 이상이 조현병 원인의 주를 이루는지, 도파민 분비 문제는 조현병으로 인한 결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의학계에서 주장하는 뇌 기능 이상 증상인 도파민 조절 문제(정신질환)는 사실 이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도파민 분비 조절 이상 증상이 어떤 원인에 기인하는 것인가를 찾아서 그 문제를 (약물치료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
- 5) 독일의 심리스릴러 Psychothriller 장르 작가 피첵(1971-)은 2006년에 그의 첫 소설 『테라피』를 선보였다. 조현병 질환자의 병적 심리를 파헤쳐 드러낸 이 작품은 출간 열흘 만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저작권법 연구로 학위를 받은 법학박사이자 소설작가인 피첵은 심리스릴러 장르의 다수의 작품들로 독일에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테라피』 외에 최근 『탐승객 23명』

(2006)를 사례로 삼아서 주인공 정신과 전문의 빅토르 라렌츠 Viktor Larenz와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한 여성 아동문학작가, 이 둘 사이에 놓인 이 이야기와 이를 중심으로 한 두 인물 사이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⁶⁾

I.2. 중증 조현병 증상, 『테라피』의 망상과 환각

『테라피』는 라렌츠 박사라는 인물을 통하여 현실과 가상, 두 세계가 혼재하는 조현병 질환자의 병적 심리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DSM-5에서 규정한 조현병 증상 5가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운동 행동, 음성 증상 negative symptoms을 일으키는 조현병 질환자는 대화할 때도 정상인과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반힐 2016, 29-32). 조현병 질환자의 망상 증상은 이들로 하여금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과 진실인 양 확신을 갖고 주장하도록 만듦으로써 대화 집단 내에서 대화는 맥락으로부터 벗어나고 소통은 경직되어 결국 서로 대립하게 된다. 피ček은 『테라피』 프롤로그부터 조현병 질환자 라렌츠의 망상 증상을 극적으로 형상화한다. 그는 사라진 자신의 딸 요제피네(요지) Josephine(Josy)를 찾겠다며 딸이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에서 딸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아이를 필사적으로 찾으려 든다. 이미 정상인의 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의 비정상적인 망상 행동으로 인해 병원 관계자들과 거칠게 마찰을 빚는 사건이 극적으로 전개된다(Fitzek 2006, 12-18).⁷⁾

환각은 조현병 질환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에 해당한다. 물론 중증의 환각에 시달리는 조현병 질환자도 병식 Krankheitseinsicht은 없다. 이러한 조현병 질환자는 본인만의 병적 쾌감에 젖은 환각세계 halluzinatorische Scheinwelt에 빠져 환청, 환시, 환후 등을 경험하고 이를 실재하는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환각 증상에 빠진 조현병 질환자는 정상인이 경험하는 일상적 대화가 불가능하다. 더 정확히 말해 이는 삶의 총체적 붕괴와 단절을 의미한다. 피ček은 『테라피』에서 라렌츠의 환각세계를 비중 있게 형상화하였다. 파르쿰 섬 Insel Parkum, 이곳은 그가 평온하게 지내기에 완벽하지만 치료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그의 병적 세계이다. 이곳에 한 의문의 여성작가가 자신의 조현병 문제와 라렌츠 조현병의 치료책을 동시에 갖고 찾아온다. 본 연구의 본문에서 주요하게 다룰 그녀의 이야기가 라렌츠에게 전해지는 파르쿰은 『테라피』 사건 진행의 주요 배경이 된다.

I.3. 『테라피』의 독서 가치와 연구 필요성

조현병 질환자의 삶을 보여주는 피ček의 『테라피』는 G. 뷔히너의 『렌츠 Lenz』처럼 질병기술편 Nosographie에 기여할(도기숙 2010, 107-109) 여지는 커 보이지 않더라도 대중소설을 즐겨 읽는 독자들에게 현실과 환각이 혼재하는 조현병 질환자의 증상이 정신분석적으로 어떠한지 긴장감 있고 흥미롭게 확인시켜주는 소설이다. 작가 피ček은 현실세계와 환각

Passagier 23』(2016)를 비롯하여, 『몽유병자 Der Nachtwandler』, 『눈알수집가 Der Augensammler』(2011) 등 여러 작품들이 번역, 출판되었다.

6)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이야기의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등장인물인 ‘아동문학작가’ 안나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인물, 사건, 배경, 시간, 공간, 시점 요소 등을 갖춰서 쓴 이야기 Geschichte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단, 이것은 완결, 작품성, 출판이 결여된 미완의 글이라는 점에서 온전한 작품 Werk은 아니다.) 둘째, 그녀의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 소설 내내 라렌츠와 안나 사이의 ‘일상의 구어적’ 맥락에서 행하는 말하기 Erzählen로서의 특징이 있다. 셋째, 안나가 라렌츠에게 ‘본인이 체험한 사건에 대해 현장감 있게 기술하고 말하는 점’에서 내러티브 Narrativ 요소를 담고 있다.

7) 이하 Die Therapie에 대한 인용은 이 텍스트에 따르며 본문의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한다.

세계가 뒤섞인 한 조현병 질환자의 병적 심리에 관한 의학적 심리학적 담화를 『테라피』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각색해냈다. 독자는 조현병 질환자의 병적 심리를 심리스릴러라는 미로에 빠져 관찰함으로써 조현병 질환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테라피』는 대중들의 소설읽기 기호에 부응하면서도 한 조현병 질환자의 삶을 회복 지향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 그리고 이야기 치료 실제에 대한 미학적 고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자와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⁸⁾

II. 『테라피』, 조현병 질환자의 환각세계가 이야기로 붕괴되다

II.1. 한 조현병 질환자, 그의 딸 실종사건 그리고 한 여성의 등장

소설 『테라피』는 조현병에 걸린 정신의학과 전문의 라렌츠를 주인공으로 한다. 그는 요제피네 실종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이 악화되어 중증 환각 증상에 빠지게 된다. 소설 대부분의 서사시간은 그가 베를린 베딩 Berlin-Wedding구역에 있는 정신병원 입원실과 그의 환각적 가상세계, 파르쿰 섬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작가 피척은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의 주치의 로트 박사 Dr. Roth와 라렌츠의 대화 내용 그리고 그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병적 환상세계 파르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형상화하여, ‘정상적인’ 현실세계의 삶과 병적인 환각세계의 삶을 오가는 조현병 질환자의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인상을 남긴다.

시종일관 작가는 이를 통해 사건간의 거듭되는 반전 효과를 작품에서 무난히 이루어내고(23ff.), 대중적 심리스릴러 장르답게 에필로그에 이르러서 딸을 유괴한 뜻밖의 인물을 밝힘으로써 극적 반전을 절정에 이르게 한다(323-331). 소설은 줄곧, 딸을 찾는 여정이자 열쇠가 대대적 수색이나 언론 보도가 아닌(29), 어느 날 불쑥 라렌츠에게 나타난 한 여성이 그에게 소개한 이야기와 이를 매개한 둘 사이의 대화임을 비중 있게 형상화했다.

작품 초반부에서 드러난 라렌츠의 조현병 환각 증상은 가출했는지 납치되었는지 혹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사라진 딸 요제피네와 관련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딸을 찾겠다며 동료 의사가 일하는 병원에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10-19). 그는 이로부터 4년 동안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지만 오히려 조현병에 갇혀 그의 병적 세계 파르쿰 섬에서 평온하지만 현실적으로 조현병 치료에 진전이 없는 시간을 보낸다. 즉 파르쿰에서의 삶은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물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그의 환각세계에 불과했다.

그의 주치의 로트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채고 약물 투여를 중단한다(19-20). 그의 평온한 가상세계 파르쿰은 이때부터 점차 균열되기 시작한다. 그의 조현병 치료는 약물복용중단과

8) 『테라피』의 서사방식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특정 작품을 매개로 치료과정을 전개’하는 특징을 지녔다. 이와 유사한 치료 방식을 보이는 몇몇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Klosinski, Gunther(1996)는 연구자의 질환자(에스더, 가명 15세)에게 도둑신랑 Der Räuberbräutigam 동화읽기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한 사례연구이다. 변학수, 채연숙, 김춘경(2008)은 하인즈와 하인즈-베리의 촉매 및 이저의 독서행위 이론과 아동청소년문학 작품들을 활용하여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변화와 삶에 활력을 제공하는 통합치료에 관한 문헌중심연구이다. 이민용(2009)은 치료자 샤라자드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진 내담자 샤리아르 왕에게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왕을 치료한 내용의 『천일야화』를 분석한 문헌중심연구이다. 박정혜, 김춘경(2011)은 10년 이상 병원에 입원한 조현병 질환자들에게 정신, 감각, 초감각, 지각을 포괄하는 심상 개념의 시치료를 실행하여 치료 효과를 얻은 사례연구이다.

함께 시작된 실질적 치료제인 이야기로 넘어간다(24). 이제 그는 한 여성과 ‘이야기 게임’을 시작함으로써 사람들과 자신에게조차 침묵했던 딸 실종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게 되고 결국 조현병과 뮌히하우젠 증후군을 극복하고 사건의 진실을 로트에게 알린다(322).

파르쿰 섬 세계의 미세한 균열(약물치료중단 초기의 결과)은 라렌츠의 조현병 치료를 알리는 첫 신호, 대폭풍 안톤 Anton이 섬에 서서히 몰려오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에 연이어 라렌츠의 분신 Doppelgänger과 같은 미스터리 인물이 악천후와 함께 파르쿰 섬에 음산하게 등장한다(32-35).

II.2. 음산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가 전개되다

안나 슈피겔 Anna Spiegel, 그녀는 자신을 아동문학작가로 소개하고(43), 그녀의 조현병 발병 원인이 된 9라는 가제목(79)을 단 이야기를 라렌츠가 잠시 동안 들어주길 간청한다. 뜻밖에도 본인과 같은 조현병을 앓는 한 여성 질환자가 찾아와서 치료를 요청한 것이다. 이로써 라렌츠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그 전개과정에서 형성하는 긴장감’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미 4년 동안의 휴가로 환자치료를 중단한 상태다. 그는 휴가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이야기 경험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는 타인과 이야기를 하는 한 지속되는 긴장상태를 회피하려는 듯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38). 이는 질환자의 이야기가 일상적인 이야기보다 더 많은 “긴장감 Spannung”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Boothe 2006, 17, 22f.).

제발 돌아가 주세요.

좋아요, 그럴게요. 약속합니다. 하지만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에 관한 이야기예요. 단 5분이면 됩니다. 믿어주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Bitte gehen Sie.

Ja, das werde ich. Versprochen. Aber erst möchte ich Ihnen eine Geschichte erzählen. Meine Geschichte. Glauben Sie mir. Es sind nur fünf Minuten. Und Sie werden keine davon bereuen(40).

그는 안나의 집요하고 간곡한 부탁에 마침내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곧바로 이야기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는 거부할 수 없이 충격적으로 이야기에 빠져든다. 왜냐하면 안나의 이야기는 그의 무의식 세계에서 억압 Verdrängung 상태로 갇혀 있는 자신의 딸 요제피네 사건과 매우 흡사하여 그가 더 이상 외면할 수도, 그의 관심 밖 일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실감으로부터 괴리된 사고 능력과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대화 기능은 서서히 그리고 바르게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다. 파편화 되어 흩어져 있던 라렌츠의 언어 기호들이 요제피네 사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정리되면서 그의 이야기 구성력은 회복된다(Vgl. Brinker 2001, 17).

어느 날 이 꼬마 샤를로테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심하고 집을 가출해요.

요지. 빅토르는 딸에 대한 생각을 떨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Eines Tages beschloss die kleine Charlotte dann, ihr Schicksal selbst in die Hand zu nehmen, und riss von zu Hause aus.

Josy. Viktor hatte versucht, diesen Gedanken zu verdrängen, aber war ihm nicht gelungen(75).

이미 말씀 드렸듯이 샤를로테는 내 삶에 실제로 들어온 마지막 소설인물이예요. 내가 이 여자 아이와 경험한 것

은 너무나 처참한 것이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Wie ich schon sagte, Charlotte war die letzte Romanfigur, die in mein Leben trat. Was ich mit ihr erlebte, war so schrecklich, dass ich danach den Zusammenbruch hatte(77).

대략 4년 전 베를린이었어요. 겨울이었죠.

11월 26일이었겠지. 빅토르는 속으로 안나의 이야기에 덧붙였다.

Das war vor etwa vier Jahren in Berlin. Im Winter.

Am 26. November, ergänzte Viktor lautlos(77).

조현병으로 인하여 붕괴된 라렌츠의 이야기 기능은 이를 위한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안나의 이야기로 인하여 제 기능을 찾기 시작했고, 두 인물은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이야기의 역할 교환도 점차적이고 자연스럽게 바뀌어갔다. 조현병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안나가 오히려 치료자 역할을 하게 되고 정신의학과 전문의 라렌츠는 내담자가 된다. 둘은 당연한 듯 치료자와 내담자, 이야기 발신자와 수신자 역할 교환을 파르쿰 섬의 붕괴 시까지 수용한다. 라렌츠가 거부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본인 치료라는 사태를 그녀의 이야기가 발생시켜서 그를 치료 과정으로 끌어들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볼 때,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서 수동적으로나마 “이야기가치 Erzählwürdigkeit”를 입증한 셈이다.

이처럼 치료자 라렌츠가 내담자 안나를 치료한다는 이들 인물 사이의 처음 관계이자 안나의 요구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들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어 간다. 무엇보다도 조현병 치료를 거부하는 라렌츠의 문제가 이야기의 개입과 작동으로 풀리기 시작하여, 점점 더 그는 안나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 ‘결말에 이르는 이야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안나의 이야기는 딸을 잃은 아버지 라렌츠의 처지에서 그가 반드시 들어야 할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된다(Vgl. Gülich/Hausendorf 2000, 374).

이제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않을게요. 저는 내일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안 돼! 빅토르는 열심히 해결책을 간구했다. 비록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안나에게 오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이제 그녀가 오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

Ich werde Sie ab sofort nicht mehr belästigen. Vielleicht kann ich ja morgen schon nach Hause.

Nein! Viktor suchte fieberhaft nach einem Ausweg. Er konnte es nicht zulassen, dass sie nicht mehr wiederkam, obwohl es genau das war, was er noch vor wenigen Minuten von ihr verlangt hatte(78).

한편으로 라렌츠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딸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욕구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로서 내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 “일종의 심문 Es war ein Verhör(101).” 그리고 거짓말까지 저지르는 실수를 범한다. 치료자가 내담자의 치료와 관련 없는 어떤 사실을 내담자에게서 파악하는 일은 상담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

당신이 방갈로 앞에 섰을 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혹시 기억할 수 있나요?

안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이 저의 치료에 중요한 것인가요?

아니,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요. 라렌츠는 거짓말을 했다.

Können Sie sich daran erinnern, ob Sie etwas gehört haben, als Sie vor dem Bungalow standen?

Anna sah ihn fragend an.

Ist das für meine Therapie wichtig?

Nein, Aber für mich.

Ja, log er(98).

내담자가 상담시간에 본인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나 은유적 표현을 생성하면 치료자는 내담자가 어렵게 꺼내놓고 공들여 만든 이것을 치료를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안나와의 만남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기초적 지식까지 잊게 한다. 그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처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안나에게 감행한다. 그 결과 그녀의 ‘이야기 생성과 활동은 중단’ 된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구축한 이야기 세계가 사실 확인을 위한 치료자의 질문 공격에 무너져 내린다.

어디로 갔나요? 거기가 정확히 어디였나요?

뭐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안나는 다소 당황한 나머지 눈을 깜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야기할 흥미를 일시에 잃은 듯했다.

그렇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안나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Wohin? Wo genau war das?

Was? Wieso ist das so wichtig? Anna blinzelte etwas verstört und schien auf einmal doch keine Lust mehr zu haben weiterzureden.

Ist es nicht. Verzeihen Sie. Fahren Sie fort. Anna räusperte sich und stand auf(78).

치료자 자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담자인 라렌츠는 딸을 찾고자 하는 이유로 이 이후로도 여러 차례 안나의 이야기 전개를 방해한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그가 친딸을 찾으려는 갈망의 당연한 표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가 안나의 이야기를 방해한다는 사실은, 그가 본인의 조현병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자 치료 진전이 없음 곧 환각세계 파르쿰 섬 삶으로의 퇴행 추구를 의미한다. 그가 필사적으로 파르쿰 섬에 남기 위하여 현실세계의 인물 로트 의사와 협상하는 장면에서 보이듯이, 이는 라렌츠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조현병 치료를 거부하는 내면세계의 반응 즉 질병의 영향에 사로잡힌 정신의 표출이다.

[...] 내가 파르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단지 나에게 약을 건네주세요.

[...] Gib mir einfach den Pillencocktail, und ich kann zurück nach Parkum(319).

날씨는 따뜻하고 온화했고, 아내는 내게 매일 전화를 주면서 곧 방문하려고 했지요. 할버슈테트는 발전기를 손봐 주었고, 미하엘은 그가 신고 온 신선한 생선을 가져다주었지요. 진트바트가 내 발치에 앉아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지가 나와 살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러나 폭풍이 일어난 것은 당신들이 나의 약을 빼앗고 나서부터였어요.

Das Wetter war warm und mild, meine Frau rief täglich an und wollte mich bald besuchen. Halberstaedt kümmerte sich um den Generator, und Michael brachte mir frischen Fisch von seinen Fahrten mit. Sindbad lag mir zu Füßen. Und das Wichtigste: Josy lebte bei mir. Alles war bis dahin perfekt. Der Sturm zog erst auf, als ihr meine Medikamente abgesetzt habt(319).

II.3. 이야기로 병적 환각세계를 결말내다

안나가 쓴 이야기는 사실 라렌츠의 병적 환각세계인 파르쿰 섬, 즉 그의 머릿속에서 생성되어 존재하는 만큼, 점점 그의 현실적 삶과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적 요소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소설 『테라피』

결말부에서 어느덧 안나 이야기의 주인공이 샤를로테에서 요제피네로 바뀐 것처럼 그녀의 이야기에 라렌츠의 현실 삶의 요소들이 더욱더 뒤섞인다. 이는 심리스릴러 장르로써 『테라피』가 사건을 둘러싼 공포심, 호기심, 긴장감 따위를 독자에게 형성하여 작품으로의 몰입을 가능케 하면서⁹⁾ 다른 한편으로 라렌츠가 조현병을 점차 극복하여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이야기 치료의 방법이자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라렌츠는 그의 아내 이사벨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질식사한 요제피네의 장면을 묘사한 안나 이야기의 결말부를 접하고 격한 감정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조현병 극복이라는 목표에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안나는 그의 조현병 악화의 근원적 유발 원인이 되는 이 장면을 이야기로 재현함으로써 그의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행위를 실행한 것이다. 안나의 이야기는 라렌츠가 필사적으로 회피하려 했던 딸 실종 사건의 진상에 그가 다가서도록 만들어서 그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동요시킨다.

요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아이는 어디 있어?

계속 읽어봐요!

창고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내 위쪽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 단지 유일한 가능성이 남았다. 나는 아이를 아래로 끌어내려 함께 (기름 속으로) 잠수했다. 기름은 죽음의 외투처럼 우리를 감쌌다. 끈적이는 기름막이 옷에 완전히 스며들었고 얼굴의 모든 구멍을 막았다. [...] 다시 기름 위로 얼굴을 내밀었을 때, 나는 축 늘어진 요지를 팔로 안았다. 나는 요지 입에서 기름을 뱉어냈다.

Was ist mit ihr geschehen? Wo ist sie?

Lies weiter!

Die Tür flog wieder auf, und diesmal hörte ich die Schritte über mir. ich hatte keine andere Wahl. [...] bleib mir nur eine einzige Möglichkeit. Ich riss die Kleine nach unten und tauchte mit ihr ab. Das Öl umschloss uns wie ein Mantel des Todes. Sein klebriger Film durchdrang alle Kleider und schloss jede Öffnung im Gesicht. [...] Als ich wieder auftauchte, hielt ich Josy leblos in meinen Armen. ich strich ihr das Öl vom Mund(294-295),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나가 차갑게 대답하고 볼보의 옆 유리창을 잠시 응시했다. 빅토르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콧물을 훔쩍었다.

나에게 말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럴 수 없어요.

왜 당신은 나를 괴롭히지? 왜 이야기를 지어내지? 요지는 죽지 않았어.

아니요. 죽었어요.

[...]

당신은 누구야?

나는 안나 슈피겔. 내가 요지를 죽였어요.

Das ist eine LÜGE!

Nein. Ist es nicht, antwortete Anna kalt und sah kurz aus dem Seitenfenster des Volvos. Viktor wischte sich die Tränen

9) 라렌츠가 안나의 이야기를 읽는 과정에서 샤를로테가 요지로 대체되는 장면은 심리스릴러 장르에 걸맞게 처리된다.

더 이상 저를 샤를로테라 부르지 마세요. 여기 작은 섬에 저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요지? 빅토르는 이렇게 말하며 안나를 쳐다보았다. 안나는 재미있어 하며 말했다. 당연하죠. 당신과 나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요?

Nenn mich nicht mehr Charlotte. Hier, auf meiner kleinen Insel, habe ich einen anderen Namen.

Josy? Viktor sah auf, und Anna lächelte. Natürlich. Wir wussten doch beide von Anfang an, um wen es hier geht, oder(280-281)?

mit dem Handrücken aus dem Gesicht und zog die Nase hoch.
 Sag mir, dass das nicht wahr ist.
 Das kann ich leider nicht.
 Warum quälst du mich? Warum denkst du dir das alles aus? Josy ist nicht tot.
 Doch.
 [...]
 Wer bist du?
 Ich bin Anna Spiegel. Ich habe Josy umgebracht(296-297).

안나가 결정적인 말을 뱉기 전에 빅토르는 안나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일이 일어났다. 자동차가 솟아올라서 파도를 향해 돌진하는 바로 그 순간, 안개는 걷히고 빅토르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난방 장치, 천장 램프, 작은 방 모든 것이 일시에 분명해졌다. [...] *하얀 철재 침대, 회색 양탄자, 떨어지는 주사 방울* 이제 그는 모든 의미를 알게 됐다.

Viktor sah Anna in die Augen, bevor sie die entscheidenden Worte sprach. Und dann passierte es. In dem Moment, in dem der Wagen abhob und auf die Wellen zuflog, lichtete sich der Nebel, und Viktor begann alles zu verstehen. *Eine Heizung. Die Deckenlampe. Das kleine Zimmer.* Auf einmal war ihm alles klar. [...] *das weiße Metallbett, die graue Tapete, der Tropf.* Jetzt verstand er. Jetzt machte alles Sinn(300).

III. 라렌츠와 안나 사이의 이야기와 그 치료적 기능

III.1. 원활한 소통 기능

『테라피』에서 안나의 이야기는 라렌츠와 안나 사이의 원활한 소통의 길을 열어주었고 종국에는 이들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작용한다. 라렌츠와 안나는 원래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로부터 어렵게 얻은 5분 동안 본인 병의 증세만 나열하지 않는다. 주어진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선택한다. 이야기를 선택한 결과는 5분 후 만남의 단절이라는 이미 두 인물이 약속한 ‘정해진 사실’의 취하에까지 이르게 하고 나아가 라렌츠의 조현병과 딸 실종 사건을 점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의 지속성을 가능케 한다. 이야기의 내재적 성질인 사건의 연결성이 대화 주체들에게 원활한 소통과 몰입을 전제한 단단한 연결고리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Klosinski 1996, 178). 라렌츠는 그의 지인들의 경고와 함께 그가 경험한 안나의 의심스럽고 소름끼치는 언행 때문에 그녀를 불신하여 만남의 기회가 사라질 위기를 자초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이야기에 거부할 수 없게 사로잡힌 상태라 지속적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갈급해 한다(196-199). 발화자와 수용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한 만남 초기 안나의 이야기는 사건의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야기 수용자인 라렌츠와 불가분의 것이 된다. 정신질환 치료가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라렌츠의 조현병 치료에 “맞춰서 삽입된 gezielt eingesetzt”(Klosinski 1996, 178) 안나의 이야기는 둘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기능을 넘어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체가 된다.

만약에 박사님이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우리의 치료가 아직도 의미가 있다고 믿을 수 없어요. 빅토르는 그의 환자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 경험했다. 그녀는 외투와 핸드백을 들고 그의 앞을 휙 지나 나가버렸다. 그러나 복도에 채 이르기 전에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빅토르가 미처 손을 쓸 사이도 없이 그녀는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행위를 저지른다. 그녀는 책상에 놓인 갈색 서류봉투를 집어서 벽난로 불 속에 던져 넣었다.

봉투가 바로 불에 탔다.

안 돼.

빅토르는 뒤따라 서둘러 갔지만 한 발자국도 갈 수 있는 힘조차 그에게 없었다.

우리의 대화가 끝이 났으니 이 서류봉투도 박사님께 더 이상 가치가 없겠지요.

기다려요! 그가 그녀를 불렀지만 안나는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쾅 소리 나게 닫고 가버렸다.

그녀는 떠나갔다. 그리고 언젠가는 요지에 대한 진실을 알아낼 수 있으리라는 그의 희망도 그녀와 함께 사라졌다. 그 희망은 불길 속에서 연기로 변했고 벽난로 굴뚝을 통해 서서히 빠져나갔다.

Aber wenn Sie so von mir denken, dann glaube ich kaum, dass unsere Therapie noch Sinn macht.

Zum ersten Mal erlebte Viktor seine Patientin völlig verärgert.

Sie griff nach Mantel und Handtasche und stürmte an ihm vorbei. Kaum im Flur angelangt, kam sie jedoch wieder zurück. Und bevor Viktor etwas dagegen unternehmen konnte, tat sie das Schlimmste, was sie ihm antun konnte.

Sie nahm den braunen Umschlag vom Schreibtisch und schleuderte ihn in den Kamin, wo er sofort Feuer fing.

Nein.

Viktor wollte hinterherhasten, aber ihm fehlte jetzt sogar die Kraft, um auch nur einen einzigen Schritt gehen zu können.

Da unsere Gespräche beendet sind, hat das wohl auch keinen Wert mehr für Sie.

Warten Sie!, rief er ihr hinterher, doch Anna drehte sich nicht um und warf lautstark die Haustür hinter sich ins Schloss.

Sie war fort. Und mit ihr verschwand auch seine Hoffnung, jemals die Wahrheit über Josy zu erfahren. Sie hatte sich in den Flammen zu Rauch verwandelt und entwich langsam durch den Abzug des Kamins(198-199).

III.2. 거울 기능

『테라피』에서는 줄곧, 안나 ‘슈피겔’ Anna ‘Spiegel’의 언행이 라렌츠의 모습을 ‘비춰주고’, 그녀의 이야기는 그의 딸 사건을 그가 확인하도록 돕는 “거울기능 Spiegelfunktion”(Klosinski 1996, 178)을 한다. 이에 관한 예를 이 소설 프롤로그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제피네는 라렌츠가 사는 현실세계 베를린에서 아버지의 친구이자 피부과 전문의 그롤케 박사 Dr. Grohlke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요제피네가 사라진 이후에도 라렌츠는 혼자서 그곳에 찾아가 진료예약도 하지 않은 딸을 찾겠다며 일련의 조현병 발작 증상을 보였다. 이와 동일하게 파르쿰 섬에서 안나도 라렌츠가 보는 앞에서 신경질적으로 천장을 쳐다보며 두 주먹을 쥐기도 하고, 내면으로부터 분노가 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 색채로 세상을 보기도 한다. 그녀는 처음에는 색깔들이 보이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고, 마지막에는 환영을 본다며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을 밝힌다(190-191). 이는 라렌츠의 분신과 같은 안나 스스로가 조현병을 앓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줌으로써 몸소 라렌츠의 거울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안나의 이야기는 라렌츠가 가장 대면하기 어려운 사실을 반영하는 거울 기능을 한다. 그는 가족별장의 선착장에서 요제피네를 자칫 익사시킬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312). 이 사건과 상응하여 그가 요제피네를 기름에 잠겨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294f.)을 그린 안나의 이야기는 그가 행한 현실의 사건에 대한 거울처럼 그에게 비춰진다. 그는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 연민, 북받쳐 오르는 사랑의 감정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이후로 병적 심리는 소산 Abreagieren되고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게 된다. 라렌츠는 안나에게 “너는 누구야? WER BIST DU(297)?”라고 절규하는데 독자의 궁금증을 자극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담기기도 한 이 질문은 오히려 조현병 질환자인 라렌츠가 자신에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안나 슈피겔!

[...]

갑자기 의미가 분명해졌다. 안나(Anna). 뒤로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읽는. 좌우가 거꾸로 된(Spiegelverkehr). 내가 바로 당신이군! 그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고 차는 서서히 사라져 병원 입원실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

베를린에는 아름답고 햇살이 환한 겨울 오후가 찾아왔다. 바람은 잦았고 구름은 걷혔으며 지난 며칠 동안의 악천후는 완전히 사라졌다.

Anna Spiegel!

[...]

Die Bedeutung war plötzlich klar: Anna. Vorwärts wie rückwärts gelesen. Spiegelverkehr.

Ich bin du!, sagte der zu ihr und sah, wie das Auto langsam verschwand und sich in ein Klinikzimmer verwandelte.

[...]

Es war ein schöner, sonniger Winternachmittag in Berlin. Der Wind hatte nachgelassen, die Wolken lockerten auf und das Unwetter der letzten Tage hatte sich endgültig verzogen(299-300).

III.3. 치료제 기능

요제피네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안나 이야기는 라렌츠가 자신의 무의식을 “추론 Rückschlüsse”하도록 작용한다. 안나 슈피겔의 정체는 다름 아닌 라렌츠, 즉 그의 거울이

라는 점에서 안나의 이야기는 라렌츠의 이야기이므로 그녀의 이야기는 줄곧 그의 현실경험과 심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에게 추론된다. 나아가 그는 안나의 이야기에서 딸이 이사벨에게 쫓기고 결국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함으로써 무감각했던 감정에 동요가 일어나는 “심적 변화 Psychische Veränderung”를 겪는다(Jesch u. a. 2006, 40). 그는 이야기의 인물과 사건을 체험함으로써 파르쿰 섬에 갇힌 과거와 현재의 거짓된 삶이 아닌 새롭고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라렌츠가 경험한 안나의 이야기는 조현병 해결을 위한 대안적 희망적 성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278ff.), 그의 무의식 세계에서 작동하는 방어기제와 그 형성 원인이 되는 과거 사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그는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감정적 동요와 걱정을 일으키고 문제의 현실적 정황을 재해석, 재수용 하게 된다. 여기에 이야기의 힘이 있다. 그는 안나와 3주간의 이야기하기 경험을 마친 후 마침내 『테라피』 말미에서 주치의 로트에게 자신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고 사건 해결의 주체로 서게 된다.

요지는 어디 있나요? 로트는 라렌츠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며 물었다.

시체는 어디에 있어요?

한순간 그의 환자는 눈을 가물거렸지만 다시 시선은 선명해졌다. 라렌츠는 그의 마지막 몇 마디를 확고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들으시오. 로트 박사가 다시 허리를 굽혀 그에게 밀착했다.

잘 들으시오. 젊은 친구.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은 당신을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들 겁니다.

Wo ist Josy? Er schüttelte Larenz an der Schulter.

Wo ist ihre Leiche?

Für einen Moment sah er, wie die Augen seines Patienten flimmerten, doch dann war sein Blick wieder klar. Larenz sprach seine letzten Worte mit fester, deutlicher Stimme.

Passen Sie gut auf, sagte er, und Dr. Roth beugte sich wieder zu ihm runter. Ganz nah.

Hören Sie gut zu, mein junger Freund. Jetzt sagte ich Ihnen etwas, was Sie berühmt machen wird(321f.).

라렌츠가 현실세계에서 요제피네에게 저질렀던 일이 파르쿰 섬에서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에게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그가 저지른 일이란 그의 아내 이사벨이 요제피네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딸을 ‘살리기 위해’, “반제 호수 안 슈바넨베르더의 가족저택 die Villa der Familie auf Schwanenwerder am Wannsee” 근처의 물속에 요제피네를 집어 넣고 질식할 때까지 손으로 딸의 입을 틀어막았던 사건이다(311f.). 이것은 안나의 이야기에서 이사벨을 피하여 라렌츠가 요제피네와 달아나다가 궁지에 몰리자 기름통에 딸을 숨기는 과정에서 질식해 죽인 파르쿰 섬 사건(294f.)의 실재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는 가족저택이 아닌 파르쿰 섬에 자신이 있다고 믿었고, 이사벨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믿었고, 이사벨을 보았다고 믿었지만 이는 현실과 환각을 혼돈 하는 중증 조현병 질환자 라렌츠의 증상이었다(312). 작가는 『테라피』에서 이 사건을 라렌츠의 의식과 무의식 심급 Instanz의 전개로 보여줌으로써 그의 내면의 근본적 충돌 상황(Vgl. Jesch u. a. 2006, 39)을 재구성했다.

파르쿰 섬은 안나와 그녀의 이야기 등장으로 인하여 마치 최면치료 상태와도 유사해졌다. 라렌츠는 치료자로서의 안나에 의해 전해진 요제피네 질식사건 이야기를 체험하고 걱정적으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질환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았다(298ff.). 브로이어와 프로이트 J. Breuer/S. Freud는 질환의 원인이 되는 문제 이야기의 재생과 이 행위의 치료적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브로이어는 그의 치료 사례, 안나 O. 양에서 “히스테리 현상을 일

으켰던 사건들이 최면 중에 재생되자마자 히스테리 현상들이 사라지더라는 경험은, 그 논리적 일관성이나 체계적 실행에서 더 바랄 것 없는 치료적 기술 기법을 끌어내었다. [...] 이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증세는 영구히 사라진다.”¹⁰⁾라고 밝힌다. 질환자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이야기로 재현하여 쌓인 울분을 마음껏 표현하면 “정신질환 Psychische Erkrankungen”으로 인한 신체적 이상 증상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III.4. 안나, 능숙한 이야기 전개자로 역할

치료적 기능이 내재한 이야기를 작성, 구성하고 그 작동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함께, 치료자가 치료 상황에서 얼마나 능숙하게 이야기를 전개하는지가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테라피』에서 라렌츠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은 안나이다. 그의 조현병 치료제인 안나의 이야기는 담화자 안나의 능숙한 전달능력 없이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라렌츠의 조현병 치료 성패가 안나의 이야기하기 능력에 달려 있을 정도로 치료자의 이야기하기 기술은 중요하다. 이야기 치료는 치료자가 이야기 발화 상황을 고려한 그의 주도적인 치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치료자는 치료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이야기를 다루고 전개해낼 수 있는 “민감성 Sensibilität”과 “유연성 Flexibilität”이 요구된다(Schneider 2009, 298f.). 물론 소설 『테라피』에서 안나는 인간이라고 여길 수 없게 형상화되었다. 시종일관 음산하고 의문스러운 영적 존재로 특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나가 라렌츠를 대하고 말하는 방식과 태도는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자신을 의심하는 라렌츠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가 적힌 종이를 불에 던져버리는 모습(198), 안나가 요제피네에 관한 이야기를 라렌츠의 당시 심정에 맞춰서 알려주는 행위(278), 그리고 흐느껴 우는 라렌츠에게 눈물을 닦고 마음을 추스르고 이야기를 계속 읽어나가 ‘이야기로 치료받으라고 독려’하는 태도(294) 등 안나는 라렌츠의 상황과 태도에 맞춰 ‘사람처럼’ 민감하고 유연하게 치료 행위와 이야기 내용을 조절해낸다.

III.5. 이야기, 치료 공간으로 기능

소설 『테라피』의 서사 공간은 라렌츠의 조현병에 대한 치료 방식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베를린 베딩 지역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약물치료이고 다른 하나는 병적 환상세계 파르쿰 섬에서 펼쳐진 이야기 치료이다. 물론 이것은 작품이 현대심리치료의 실제보다는 문학적 허용으로써의 비현실성을 전제하기에 가능하다. 그럼에도 치료 방법에 따른 서사 공간의 분리가 소설의 비현실성에 기반 한 유희추구에 머물지 않는다.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라렌츠의 현실세계, 즉 치료 진전이 없는 4년 동안의 병원 입원실 생활은 그에게 이야기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 작동이 저지된 장소라는 점에서 이 소설의 공간적 분리는 치료의 진전 유무에 따른 분리를 내재한다.

다중 환각 증세 Multiple Wahnvorstellungen 치료에 대한 무성과와 걸림돌을 의미하는 약물치료와 현실세계로부터 라렌츠를 분리시킨 ‘이야기의 등장’은 그가 병적 환상세계를

10) Aus diesen Erfahrungen, daß die hysterischen Phänomene bei dieser Kranken verschwanden, sobald in der Hypnose das Ereignis reproduziert war, welches das Symptom veranlaßt hatte—daraus entwickelte sich eine therapeutisch-technische Prozedur, die an logischer Konsequenz und systematischer Durchführung nichts zu wünschen ließ. (...) War dieses erzählt, so war das Symptom damit für immer behoben(Breuer/Freud 2011, 55).

극복하도록 도운 “최초의 빛이 된 순간 erst lichter Moment”이다(300). 작품에서 요제피네의 실종 ‘사건’이 일어난 가시적 현실적 공간은 치료와 변화를 저지시킨 ‘고정의 장소’로 머문 반면 ‘이야기’가 발생한 가상적 비현실적 공간은 라렌츠 내면의 의지와 진실 추구를 작동시켜서 현실 변화를 이룬 ‘유동의 장소’가 되었다. 『테라피』에서 치료 방법과 치료 성과의 유무에 따른 서사 공간의 분리는 사실적 현실공간에 대항한 이야기 공간의 배치라는 의미를 지닌다.

IV. 결론

한 중증 조현병 질환자의 삶을 그린 영화 뷰티풀 마인드 A Beautiful Mind (2002)¹¹⁾에서 주인공 존 내쉬 John Nash는 조현병으로 지독한 환시, 환청에 시달린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내쉬 박사를 괴롭힌 조현병 증상은 그에게만 보이는 한 남성이 줄곧 나타나 말을 거는 환각이다. 그가 겪는 고통은 컸지만 내쉬 옆에는 언제나 그의 아내 알리시아 내쉬 Alicia Nash가 함께한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남편의 환각에 그녀 또한 사랑과 지지가 담긴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로 맞선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의 도움으로 내쉬는 점차 조현병을 극복해간다.

불행히도 라렌츠 옆에는 알리시아 내쉬 같은 협력적 이야기 동반자가 없다. 이 소설 에펠 로그에서 라렌츠의 주치의 로트는, 그가 알려준 요제피네 실종의 전말대로 모나코의 한 해변가에서 호사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사벨을 경찰과 함께 찾아간다. 그녀는 맨해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4년 전 라렌츠가 하마터면 익사시킬 뻔한 요제피네를 기절상태에서 발견하여 남편 몰래 빼돌렸다. 아내 이사벨은 남편 라렌츠의 조현병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병을 악용했고 남편의 재산을 갈취했다. 이사벨은 사랑과 격려를 동반한 이야기하기는커녕 남편에게 이야기의 단절과 부재로 일관했다.

이사벨이 왜 이렇게까지 사악한지에 대한 이유는 『테라피』에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남편 아합 왕을 위해 나뭇의 포도밭 Nabots Weinberg을 빼앗고 포도밭 주인까지도 살해하여 악녀의 대명사가 된 이사벨이 우선 떠오른다(1. Könige 21). 아합 왕과 이사벨 사이의 이야기로 인한 악한 열매가 나뭇의 포도밭 사건이라면 『테라피』의 이사벨 라렌츠는 남편과 공범이 아닌 적대자가 되어 이야기의 단절을 의도한다. 이들 이사벨을 중심으로 한, 두 사건의 차이는 조현병과 이야기의 유무에도 있다.

이야기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정의는 바르트 R. Barthes로부터도 나왔다. 그는 이야기가 세상에 셀 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바르트의 이야기 정의에 근거하면 문학, 예술, 매체, 일상 등에 이르는 편만한 이야기는 세계에 실재하는 총체의 각 개별성을 만들어내는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세계 내에서의 편만함을 이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행사된 이야기는 그 자체로 정신과 물질의 실재성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Vgl. Barthes 1975, 237-238).

철학적 사유를 지나 치료적 적용 차원에서 보면 이야기는 이미 치료 도구로 활용되어 그 효과를 입증해왔다. 이야기를 도구하여 치료 효과를 이루어냄으로써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 질환자들의 실질적 변화를 제시하는 수많은 연구와 상담 사례가 프로이트 이후로 오늘날까

11)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을 뒤집는 내시균형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1994)을 수상한 존 내쉬와 그의 아내 알리시아 내쉬의 역경과 성공을 그린 영화.

지 정신분석 치료, 인지심리 치료, 이야기 치료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또한 소설 『테라피』를 사례로 들어서 라렌츠와 안나 사이의 이야기를 치료적 관점에서 확인하였다. 소설 『테라피』에서 이야기는 그 내재적 특징으로 인하여 무의식세계를 정신분석적으로 탐색하는 기능, 문제와 마주하도록 돕는 거울기능, 격정적 감정 분출을 발생시킴으로써 회복으로의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추동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문학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야기의 치료적 기능과 효과에 관한 문헌중심연구와 함께 서사학 Narratologie에 기반 하여 내담자 이야기에 접근하고 이를 다루는 사례중심연구도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차 문헌

피첵, 세바스티안(2007): 테라피(권혁준 역). 해냄.

Fitzek, Sebastian(2006): Die Therapie. München.

2차 문헌

도기숙(2010): 뷔히너와 정신병리학 담론 -『렌츠』에 나타난 정신질환 증세를 중심으로. 뷔히너와 현대문학 35, 107-127.

대한조현병학회(2013): 조현병, 마음의 줄을 고르다. 군자출판사.

박정혜, 김춘경(2011): 심상 시치료가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의 증상완화에 미치는 효과. 대한문학치료연구 2(1), 59-83.

반힐, 존 W.(2016): DSM-5 임상사례집(강진령 역). 학지사.

변학수, 채연숙, 김춘경(2008): 불안장애와 문학치료. 뷔히너와 현대문학 30, 327-352.

보건복지부(2017):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이민용(2009): 인문치료와 이야기치료 -『천일야화』를 중심으로. 뷔히너와 현대문학 32, 259-284.

이민용(2010): 이야기 해석학과 이야기 치료. 헤세연구 23, 249-273.

1. Könige(1992). in: Die Bibel -Altes und Neues Testament mit Bildern aus dem Heiligen Land von Jörg Zink. Augsburg.

Barthes, Ronland(1975): An Introduction to the Structural Analysis Narrative. New Literary History 6(2), 237-272.

Boothe, Brigitte(2006): Narrative Intelligenz und Konfliktdynamik. in: Vera Luif, Gisela Thoma, Brigitte Boothe(Hrsg.): Beschreiben - Erschließen - Erläutern, Psychotherapieforschung als qualitative Wissenschaft. Lengerich, 17-38.

Breuer, Josef/Freud, Sigmund(2011): Studien über Hysterie. Frankfurt am Main.

Brinker, Klaus(2001):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e Einführung in Grundbegriffe und Methoden. Ludwigsfelde.

Gülich, Elisabeth/Hausendorf, Heiko(2000): Vertextungsmuster Narration. in: Klaus Brinker(Hrsg.): Text- und Gesprächslinguistik 1. Halbband. Berlin, 369-385.

Jesch, Tatjana u. a.(2006): Patientenerzählungen wie Literatur verstehen, Vom Nutzen der Narratologie für die psychodiagnostische Hermeneutik. in: Vera Luif, Gisela Thoma, Brigitte Boothe(Hrsg.): Beschreiben - Erschließen - Erläutern, Psychotherapieforschung als qualitative Wissenschaft. Lengerich, 39-65.

Klosinski, Gunther(1996): Bibliothapeutische Traumarbeit nach akuter psychotischer Dekompensation. Praxis der

Kinderpsychologie und Kinderpsychiater 45, 174-178.

Sartory, Gudrun(2007): Schizophrenie –Empirische Befunde und Behandlungsansätze. München.

Schneider, Birgit(2009): Narrative Kunsttherapie Identitätsarbeit durch Bild-Geschichten, Ein neuer Weg in der Psychotherapie. Bielefeld.

<http://www.bptk.de/> 독일연방심리치료사협회(검색일자: 2017년 3월 20일)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망상과 환각 부르는 조현병 환자, 4년 새 10.6% 증가’(보도일자: 2015년 8월 30일)

Zusammenfassung

Therapieren durch Geschichte

- am Beispiel des Romans *Die Therapie* von Sebastian Fitzek, der eine halluzinatorische Scheinwelt eines Schizophrenen darstellt

Lim, Chun-taek (Kyungnam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aus der therapeutischen Sicht die Geschichte zwischen Dr. Larenz und Anna im Roman *Die Therapie* von Sebastian Fitzek zu betrachten. Dafür wird zunächst das psychopathologische Phänomen der Schizophrenie einer Figur im Zusammenhang mit dem literarisch-ästhetischen Aspekt beobachtet sowie die therapeutischen Merkmale und Wirkungen der Geschichte analysiert.

Seit Freuds Psychoanalyse ist Geschichte als Therapeutika der psychischen Erkrankungen im Bereich der kognitiven Psychologie und der geschichtlichen Therapie angewendet. Die therapeutische Werte von Geschichten sind heutzutage an Wissenschaftler und Therapeut in Literatur, Psychologie und Heilkunde von Bedeutung.

Im Mittelpunkt dieser Arbeit stehen die Kommunikations-, Spiegels- und Therapiefunktionen der Geschichte, und dabei auch die Entfaltungskompetenz vom Erzähler sowie Geschichte als das therapeutische Raum beschrieben.

Symbolisch dramatisierte Sebastian Fitzek den medizinisch-psychologischen Diskurs in seinem Roman *Die Therapie*, indem die Überwindungsprozesse der Schizophrenie der Hauptfigur Dr. Larenz durch Gespräche mit Anna literarisch dargestellt wird. Dadurch können die Leser den krankhaften psychologischen Zustand eines Schizophrenen symbolisch erleben und auch die therapeutischen Funktionen und Werte einer Geschichte überlegen.

Schlüsselwörter : Therapieren durch Geschichte, Schizophrenie,

Die Therapie, Psychothriller, Sebastian Fitzek

필자 E-mail : fruehling@kyungnam.ac.kr

논문투고일 : 2017. 7. 12 / 심사완료일 : 2017. 8. 30 / 게재확정일 : 2017. 9. 15

세계관B/03/발표논문 요약본/

(요약) 성경에 기대어 본 이야기의 치료적 기능 고찰

- 어느 조현병 질환자의 환각세계를 그린 세바스티안 피척의 소설 『테라피』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이 연구는 세바스티안 피척의 소설 『테라피』에 나타난 라렌츠 박사와 안나 사이의 이야기를 치료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 연구는 문학의 미학적 차원에서 조현병과 관련한 소설 속 한 인물의 병리현상을 관찰함과 동시에 이야기의 치료적 특징과 효과를 분석한다.

이야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치료 이후로 줄곧 지심리 치료, 이야기 치료 등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로써 유용하게 쓰여 왔고, 최근 들어 문학, 심리, 의학 연구자들과 치료자들에게서 그 치료적 가치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연구의 본론인 Ⅱ, Ⅲ장에서는 이야기의 치료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의 원활한 소통 기능, 거울 기능, 치료제 기능과 더불어 이야기 주도자의 능숙한 이야기 전개 능력, 치료 공간으로서의 이야기를 제시한다.

작가 피척은 심리스릴러 장르 소설 『테라피』에서 주인공 라렌츠가 미스터리하게 등장한 한 여성과의 이야기를 통해 조현병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함으로써 의학적 심리학적 치료과정에 대한 담론을 상징적으로 무난하게 각색해냈다. 이로써 독자는 소설 『테라피』를 통해서 한 조현병 질환자의 병적 심리를 상징적으로 경험하면서 이야기의 치료적 기능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이야기 치료, 조현병, 『테라피』, 심리스릴러, 세바스티안 피척